

## 파리 기후협정 '간략(streamlined)' 협상문 발표

2015 배출감축협정을 위한 여러 제안을 담은 문서, '보다 분명한 그림' 제공

**2015.7.26, Ed King/** 올해 말 타결될 2015 기후 협정에 담길 일련의 제안들을 담은 문서가 발표되면서, 협상문이 어떤 식이 될지 “ 조금 더 분명한 그림” 을 알 수 있다고 UNFCCC 관계자들이 밝혔다.

각국 정부는 83페이지에 달하는 이번 문서를 협상준비 차원에서 활용하게 될 것이다.

UN은 “ 이번 문서는 파리에서 타결될 법적 구속력 있는 기후협정에 어떤 내용이 담길 수 있을지 처음으로 명료하게 보여준다” , “ 신기후협정을 채택할 때,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결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한 밝히고 있다” 고 성명서에 썼다.

‘ 파리협정에 포함될 가능요소 설명 비공식문서(non-paper illustrating possible elements of the Paris package)’ 라는 제목으로 나온 문서는 협정의 어떤 부분이 국제법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.

예를 들어,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한 공약들은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지만, 이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정이 가능하다.

일부 국가—특히 미국—의 경우에는 더욱 높은 감축량을 법적 구속력 있게 명시한 문서에 서명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있다.

### 상반된 평가

세계자원연구소(World Resources Institute)의 제니퍼 모건(Jennifer Moragan)은 공동의장이 “ 어지러운 내용들을 잘 정리(cut through the clutter)” 하여 일관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.

“ 간소하게 정리된 이번 협정문은 기후협상을 펼쳐나가는 데에 강력한 토대가 된다” 고 말했다.

하지만 부정적인 평가도 있다. 옥스팜(Oxfam)의 얀 코왈지크(Jan Kowalzig)는 기후재정에 대한 정기 평가와 관련된 문구가 “ 약하다” 고 평가했다.

본지(RTCC)가 받은 또 다른 이메일은 “ 제안된 협상문에는 인권, 토착민 권리, 성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” 고 썼다.

이번 비공식문서의 발표는 2015 신기후협정 협상에 있어 반가운 진전으로 평가되는 가운데, 얼마만큼의 작업이 더 필요한지를 알려주기도 한다.

여러 가지 결정사항을 기술하는 데에 “ 해야 한다, 한다, 혹은 ~수도 있다(should, shall or may)” 와 같은 단어의 사용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여 다양한 안들이 제시되고 있다.

공동의장은 시나리오 노트에서 미해결 문제를 처리하기 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.

“ 따라서 매우 제한된 시간을 최선으로 활용하고 유연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” , “ 모든 당사국이 가능한 빨리 사전 협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” 고 공동의장은 썼다.